

대안적 글로벌 개발협력의 이론 모색: 행복론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

우창빈**

본 연구는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라 할 이론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행복론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그 함의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이론들인 롤즈와 센의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복이론에 대해 이들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그 이론적 근거와 함께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적실성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개발이 사회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고, 역량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 등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옳은(right)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good) 삶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론은 규범적이고 의무론적인 롤즈나 센의 이론과 달리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목적론적인 접근으로서 의무론적인 역량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대안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행복을 가치평가의 유일한 척도로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행복은 다른 목표들을 포괄하는 목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개발(good development)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글로벌 개발, 행복, 역량이론, 센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개발(development)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63달러였던 최빈국에서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으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속하게 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DAC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 A01-031387].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했음을 밝히며, 토론과 심사과정에서 발전적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changbinwoo@gmail.com)

회원국의 GNI 대비 ODA의 평균비율이 0.5%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개발협력의 수혜를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위에 걸맞게 원조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렇게 해외원조를 늘려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는 저조한 수준이다.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 피상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왜 글로벌 개발협력이 필요한지,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나 목적, 그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DAC의 다른 공여국들의 경우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보다 약간 많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한편으로,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개발의 실효성과 당위성, 목적 그 자체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창설한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실행된 현대적 의미에서의 글로벌 개발정책은 수많은 국가들에 의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 돈과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다. 어떤 이는 개발이라는 것이 서구 현대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파괴적인 신화(destructive myth)로서, 서서히 몰락하는 역사의 한 실패한 장(chapter)에 불과하다고까지 한다(Escobar, 2011).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원조공여국으로 DAC에 속하게 되어 이제 막 국제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이론적 논란과 현실적 실패를 겪은 글로벌 개발협력이나 해외원조 정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찰적이고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라 할 이론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행복론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그 함의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이론들인 롤즈와 센의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복이론에 대해 이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이론적 근거와 함께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적실성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본다. 국제개발에 있어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 아닌 행복이 개발의 목적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한 행복이론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어떤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글로벌 개발 협력에 관한 이론들

1. 롤즈의 자유주의적 이론

롤즈는 모든 문제를 효용(utility)에 의거한 총합계라는 결과에 근거하여 해결하려 하고 개인들

사이의 분배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며, 이러한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그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Rawls, 1971: x vii, 20).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정의의 제 1원칙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제 2원칙에서는 모든 지위나 직책에 대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함께 가장 많은 논란이 된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운(luck)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롤즈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르는 소위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Rawls, 1971: 118)을 가정하여, 자유주의의 계약이론에 의거해 이성적인 사람들이 합의하는 보편적인 사회정의의 원칙을 이끌어 내었다. 즉, 그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는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의 사고실험을 통해,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common asset)으로 여기고, 이러한 분포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누는 데에 동의”(Rawls, 1971: 87)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롤즈의 이론은 보통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의 이론으로 불리며, 차등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으로 해석되어, 많은 국가에서 공공재원을 배분하거나 사회보장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인 자유권, 시민권은 옳음(the right)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나 효용은 좋음(the good)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권,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least advantaged)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롤즈는 한 사회, 국가의 경계 내에서 적용한 그의 이러한 이론, 즉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원칙, 차등의 원칙을 해외로까지 적용하지는 않았다. 권리 의무에 관한 그 이론의 영역을 국제사회로 확장하고자 한 롤즈의 시도는 만민법(Law of Peoples, 1999)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여기서 “만민은 정당하고 품위 있는(decent)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서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duty to assist)가 있다”(Rawls, 1999: 37)고 하여 원조의 의무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국가 간의 재분배, 불평등의 완화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롤즈가 국내 상황에 대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연적으로 결정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사회 내에서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운에 해당하는 도덕적으로 자의적(arbitrary from a moral point of view, Rawls, 1971: 14)인 것이라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 태어나

는지의 문제, 즉 국적(nationality)이 기회를 불균등하게 하는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적용하여 국제적 환경에서도 어떤 사회나 국가에 속하게 될 지 무지의 베일로 인해 알 수 없는 원초적 입장에 있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인간들은 최소 극대화의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차원에서도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최소극대화 전략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베이츠(Beitz, 1979, 2000)는 롤즈의 차등의 원리를 글로벌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 자원재분배원칙(the resource redistribution principle)과 전 지구적 분배 원칙(global distribution principle)을 제시하고 있다(Rawls, 1999: 116). 그러나 롤즈는 만민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적용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면서, 정의론에서 제시한 차등의 원리의 적용은 제한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롤즈의 만민법이 국내에서의 정의론과 달리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는 각 국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단위가 시민 개개인이 아니라 이들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이어서 개별적인 도덕적 판단의 주체라 하기 어려우므로, 롤즈는 이들 각각의 국가들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고려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그가 정의론에서 가정한 사전식 순위(lexical order: Rawls, 1971: 37), 즉 정치적 권리가 사회적 권리들에 대해 갖는 우선성의 논리가 지니는 한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이들 국가들의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각각의 국가들 내부에 있다고 보고, 가난의 문제가 그 나라의 물적 자원의 수준(level of resources)이 아니라 정치 문화(political culture-political and civic virtues)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¹⁾ 이렇게 국가들에서 기근이 반복되는 주요한 요인은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결함과 관련된 것이므로, 각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 국민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가난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에게 국가 간 원조는 모든 인간에 대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거나,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나 법치주의의 확립 등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로 만드는 것으로 그의 만민법의 논의를 정리할 수 있

1) 롤즈는 Landes(1998)를 인용하여 중동의 OPEC국가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자유를 누릴 수단이 주어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Rawls, 1999: 117).

으며,²⁾ 이러한 롤즈의 이론은 현존하는 세계 질서 자체가 기아와 빈곤을 존속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선진국들에게 광범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포게(Pogge, 2001)의 주장과도 비교되는 것이다.³⁾

물론 모든 문제를 기존 국제질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구조 속에서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고, 저개발국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세계경제 질서에서 혜택을 보는 이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롤즈의 만민법의 질서는 기존의 국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자유주의적 질서로의 편입을 더 중시하여,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손철성, 2010).

2. 셴의 역량(capabilities) 이론

셴의 역량접근은 기본적으로 롤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런 점에서 셴의 이론을 롤즈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상호, 2001). 셴은 롤즈와 마찬가지로 효용이나 이익의 결과에 근거한 분배방식, 즉 공리주의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⁴⁾. 구체적으로, 그는 공리주의가 판단에 있어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과 사람들의 복리(well-being)⁵⁾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분배에 관해 무관심하고, 권리나 자유 등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며, 조건과 적응(adaptation)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낮다고 비판한다(Sen, 1999: 62). 셴은 또한 공리주의를 비판한다는 면에서 롤즈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롤즈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롤즈의 이론에서 좋음(the good)보다 옳음(the right)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효용, 복리, 결과 혹은 기회의 평등 등의 사회적 권리들에 비하여 정치적 자유권, 시민권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2) 롤즈는 Jean Bodin으로부터 ‘well-ordered’ 개념을 차용하여, 민주적(liberal)이고, 품위 있는(decent) 만민을 질서정연한 만민이라고 하고 있다(Rawls, 1999:11).

3) 포게는 부유한 저개발국가들은 첫째 제국주의적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었고, 둘째로 부국들이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정도에 있어서 저개발국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셋째, 오늘날 국제경제질서 자체가 기존 선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저개발국들의 빈곤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며, 저개발국들의 입장에서 원조는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ogge, 2001).

4) 도덕원리로서 공리주의는 셴에 의하면 1) 어떤 일의 상태가 좋다는 것은 그 상태와 관련된 효용정보만의 합수라는 후생주의(welfarism), 2) 어떤 상태와 관련된 효용정보는 그 상태에서 모든 효용의 총합에 의해서만 평가된다는 합계원리(sum-ranking), 3) 행동, 제도, 동기, 규칙 등 무엇이든 그에 대한 모든 선택은 결과적 상태의 좋음에 따라 궁극적으로 결정된다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로 요약될 수 있다(Sen, 1988: 39).

5) ‘Well-being’은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심리학에서는 통상 ‘안녕’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심리학의 ‘subjective well-being’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경우 ‘주관적안녕’으로 해석하고, ‘well-being’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좋은 삶을 나타내며 행복과 이익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복리(福利)’로 해석한다.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센은 “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필요(economic needs)의 지위가 개인적 자유권(personal liberty)의 지위보다 낮아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Sen, 1999: 64), 이는 정치적 자유권이 우선순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권리들에 비해 그 범위가 좁은 정치적 자유권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 필요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굶어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언론의 자유의 보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Shapiro, 2012: 139)?”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센은 롤즈가 그의 차등원칙을 결국은 기초재(primary goods)⁶⁾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정보의 근거(informational basis)라는 관점에서 공리주의의 효용이나 소득은 너무 제한적이라며, 정의에 대한 좀 더 넓은 정보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데(Sen, 1999: 67), 롤즈의 기초재화, 자원(resource)도 그 속성상 이러한 사회적 정의의 정보적 근거로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더욱이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이질성,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불평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초재화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센은 지적한다. 인간 행위에 있어 그 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해 보면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재와 같은 것을 확보하기 힘들며, 설혹 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인간 능력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화일지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를 지닌 이는 동일한 소득과 기본재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장애가 없는 이에 비해 할 수 있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람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 묶음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나이, 성별, 재능, 장애, 질병 등의 차이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기회에 있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Sen, 1999; 2009).

따라서 센은 정보의 초점을 공리주의자들의 소득이 아니라 롤즈의 기초재화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득과 자원간의 관계, 그리고 복리와 자유와의 관계를 제대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초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역량(capabilities: Sen, 1999: 18), 그리고 역량이 구체적으로 현시된 것으로서 가치 있는 상태나 행위인 기능(functionings: Sen, 1999: 75)을 위주로 평가할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초점은 기능과 자원이 아니라 역량이며, 역량접근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근거를 지닌 목표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유(freedom)에 집중하는 것이다(이상호, 2001).

이러한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은 단순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정의,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정의의 정보적 근거가

6) 여러 형태의 권리와 자유, 직위에 따르는 권리와 기회, 소득, 재산,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 (Rawls, 1971: 54, 62, 92).

역량에 있으므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역량이 증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쉐의 이론은 한편으로는 공리주의자들과 같이 단순히 효용의 총계나 한계적인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또 한편, 롤즈가 제시한 기초재화를 중심으로 인간 복리를 평가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 특히 자유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쉐의 역량이론을 제시하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이론은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개발국 사람들의 역량을 증진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의무를 부각시켜 국제관계, 글로벌 개발협력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유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정의에 관한 그의 최근 저서에서 쉐는 롤즈의 공평으로서의 정의가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며, 공명정대함(impartiality)의 실천은 국지적으로 폐쇄되기보다는 개방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어서 특정하게 정의되지는 않지만 존재하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칸트의 소위 불완전한 의무(imperfect obligations)를 수용하여, 국경 안으로 한정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Sen, 2009).

전반적으로 쉐의 역량이론은 앞서 언급했던 롤즈의 이론이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한계들, 즉, 비록 공리주의의 효용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정의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기초재가 가지는 정보로서의 한계,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의 성격을 정치 제도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또한 글로벌 개발과 관련한 현실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이론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행복론의 이론적 근거

1. 행복(Happiness)이론의 배경과 동향

행복에 관한 연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소위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scientific study of happiness)는 최근 들어 주로 심리학자들, 특히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자(positive psychologist)들에 의해 연구된 것을 지칭하며, 심리학을 넘어 전반적인 사회과학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74년에 경제학자 Easterlin의 연구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에 힘입은 바 크다. Easterlin은 2차대전 이후의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의 소득수준과 행복 수준의 증가를 비교해 본 결과, 소득이 두세 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행복의 역설(paradox of happiness)’ 혹은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학문과 현실정책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미 부탄의 경우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ion: GNP) 대신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도입하여 정책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GDP 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제에 관해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인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있는 영국에서는 Cameron 수상이 행복지수인 GWB(General Wellbeing index)를 만들기 위해 통계청의 집행기관인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ONS)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영국의 많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개선을 위해 GNH와 비슷한 유형의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시 단위 그룹들이 공동체 개선을 위해 비슷한 지표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체로 이들은 사회적 자본, 신뢰, 관계 등을 강조한다(Helliwell et al., 2013).

그러나 한편, 이러한 현실 정책에 있어서의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행복에 대해 철학이나 도덕, 심리학을 넘어서 경제학, 사회정책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의, 또 뇌과학자, 임상전문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많은 학자들의 ‘이스털린 패러독스’에 대한 후속연구들에서 행복수준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임계점 또는 만족점이 연구에 따라 1만불에서 2만불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와 반대로 1만 5천불을 기준으로 소득향상에 따라 오히려 행복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Stevenson, B., & Wolfers, J., 2008)도 있어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성장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증진하지 않는 이러한 ‘행복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행복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지위의 쳇바퀴효과’(positional treadmill effect)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소득 자체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때문에(Layard, 2005), 금액으로 평가되는 절대소득(absolute income)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향유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탐욕이론(greed effect, Graham, 2009)이 Stevenson, & Wolfers (2008)의 결과를 설명하여, 소득의 상승과 관련하여 상반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Woo, 2013).

또한, 아직까지 행복을 주로 개인적인 기질이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 행복에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은 이에 비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Helliwell & Putnam (2004)은 행복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와 동시에 집합적(aggregate)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나

아가 행복에 관한 연구는 다수준(multi-level) 분석만이 타당하다는 주장(Ono & Lee, 2010)도 있다.⁷⁾ 또한, 행복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Heady & Wearing, 1992),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 정부에 대하여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⁸⁾

특히, 인간 복리와 사회 전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이론으로서 행복이론이 지니는 의미가 큰데 비해, 행복은 개발학(development studies) 분야에서 다소 경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의 광범위한 개념적 정의와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발학은 주로 현실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거나, 또는 국가나 시민사회 조직들에 의해 주도된 개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으며, 대부분의 개발 윤리학의 논쟁들도 심리사회적인 안녕(well-being), 행복에 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Clark, 2002: 838). 또한, 개발학의 하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에 있어서도 박탈, 고통, 빈곤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의 좋은 삶이나 번영, 또는 이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Thin, 2002; Schimmel, 2009).

2. 역량이론과 행복이론의 비교

다른 이론적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이론도 유사하거나 상이한 다른 논의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의미와 정책적 함의가 분명해지는데, 여기서는 먼저 경쟁적인 개념으로 서로 간의 차이점이 많이 부각되어 온 역량접근과 행복접근을 비교해보고, 다음으로 같거나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공리주의와 행복이론을 비교해 보겠다.

역량이론과 행복이론의 두 접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는데, 먼저 외견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역량이론은 대부분 개발국들에서, 그리고 행복이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의 삶의 질 혹은 복리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역량접근이 주로 사람들이 형식적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천착하여, 물질적 빈곤을 포함한 다양한 빈곤문제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면, 행복접근은 앞서 언급했듯이 소위 ‘이스털린 패러독스’, 즉 권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원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여, 주로 풍요로운 상황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7)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집합적 변수들의 다수준 분석의 사례들과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Investigating Contextual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Seoul Residents” (Woo, 2013) 참고.

8) 이와 관련한 논의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우창빈, 2013) 참고.

또한, 방법론적으로 보면, 역량이론이 주로 철학적이고 규범적(normative)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접근은 대조적으로 경험적이고 실증적(empirical)인 방법을 취한다. 다시 말해, 역량접근이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관점에서 기능과 역량의 개념을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행복접근은 여러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내어, 재화와 자유가 풍부한 상황에서도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고자 한다(Bruni, et. al., 2009).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각각 윤리적으로 서로 독자적인 영역의 목적론적(teleological)인 이론과 의무론적(deontological)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Hirata, 2011). 윤리의 개념을 크게 목적론적 이론과 의무론적 이론으로 나누어 볼 때, 목적론적 측면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현명함(prudence)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의무론적 측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의 문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⁹⁾ 예를 들어, 남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의무론적 측면이지만 목적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의무 때문 만이라고는 볼 수 없어 목적론적인 가치를 지닌다(Hirata, 2009).

센의 역량이론은 Streeten(1981)의 기초적 요구(basic needs) 접근과 유사하여,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센은 아담 스미스의 공명정대한 구경꾼(impartial spectator) 관점을 통해, 편협한 가치들에 대한 조사와 공적인 토론, 절차를 통해 믿을만하게(plausibly) 정의로운 혹은 적어도 명백히 부정의하지는 않은 상황을 이루고자 한다(Sen, 2009). 롤즈처럼 만장일치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보편가능성(universalizability)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의 이론도 롤즈의 것과 마찬가지로 위의 윤리이론의 범주에서 의무론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행복이론이 근거로 하는 행복의 추구는 때로는 도덕적인 것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덕적인 삶과는 다른 차원에서 좋은(good) 삶을 추구하여, 의무론적 이론이 아니라 목적론적 차원의 이론에 속한다고 하겠다. 행복은 여러 다양한 수단들과 목표들에 비해 보다 더 최종적인 목표로서 스스로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이며(Layard, 2005),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행복이 중요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기 때문인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정당화될 필요가 있는 의무론적인 차원의 개념은 아니

9)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만의 삶이 진정으로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금욕주의자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두 측면은 긴밀히 연계되어 이상적으로 좋은 삶의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측면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Hirata, 2011). 둘 중에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옳음이 필요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체로 좋은 삶은 도덕적인 옳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차원과는 다른 측면에서, 혹은 이를 넘어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1〉 목적론과 의무론의 비교

	목적론적 차원	의무론적 차원
준거 단위	개인	사회
주요 덕성(Virtue)	복리(Well-being)	정의(Righteousness)
통용(Currency)	이익(Interests)	권리(Rights) 의무(Duties)
윤리적 범주	좋음(Good)	정당함(Legitimate)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판단 근거	자원적 이성	공적 이성

출처: Hirata(2011: 71)

역량이론과 행복이론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먼저 행복접근의 입장에서 보면, 역량은 삶의 실현능력(life-ability)으로서, 본질적으로 삶의 기회(life-chances)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삶의 결과(life-results)로서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이나 만족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또한 역량접근에 대한 다른 비판자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학자들은 역량이론에 대해 역량을 누가 평가하는지, 또 그 평가는 어떠한 성격인지에 대해 역량이론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역량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행복이론을 후생주의(welfarism)의 일종으로 보고, 공리주의에 대해 해왔던 것과 동일한 비판을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판과 달리, 행복접근이 공리주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후생

10) 사회학자인 Veenhoven(2000, 2010)은 좋은 삶의 기회와 결과를 한 축으로 하고, 그 특성이 외부적인지 내부적인지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좋은 삶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포괄하고자 하였다. 표 2에서 상단에는 삶의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기회에 머무는 것들인데, Sen(1999)의 역량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여, 내부적인 특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삶의 문제들을 대응하는 ‘삶의 실현능력’이라고 하였다. 반면, 하단에는 삶의 기회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좋은 삶의 효과로서, 결과의 영역이다. ‘행복’, ‘주관적 안녕’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여 삶의 내부적 결과로서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표 2〉 좋은 삶의 네 가지 구분

	외적 특성	내적 특성
삶의 기회	살기 좋은 정도 (Livability of environment)	삶의 실현 능력 (Life-ability of the person)
삶의 결과	삶의 효용(Utility of life)	삶의 평가 (Appreciation of life)

출처: Veenhoven (2000:4)

주의와 차별화되는 이론으로서 행복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행복이론의 비교

첫째는 무엇보다도 행복이 벤담의 공리주의가 주장해온 쾌락(pleasure)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상당수 철학자들은 행복개념을 쾌락(pleasure)과 거의 같은 의미로서 보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행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복리(well-being)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워즈워드의 시 “행복한 전사”에서 보이듯이, 나쁜 쾌락(bad pleasures)이 있는 반면, 바람직한 고통(good pains)이 있다(Nussbaum, 2008). 즉, 쾌락이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에 많은 쾌락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행복은 감정적인 쾌락에 불과한 것으로, 윤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정당화되는 좋은 삶을 구현하는 복리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행복은 감정(emotion)이나 정서(affection)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행복이 과연 벤담의 쾌락주의(hedonic) 입장에서와 같은 의미의 쾌락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¹¹⁾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나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혹은 상황을 윤리적으로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이 정서적이라고 하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좋은 삶이라 할 수 있는 복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는 것을 아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괜찮은 삶(well-off)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Haybron, 2008: 139)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좋거나 나쁜 감정을 느낌으로써 삶을 평가(evaluate)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간주되며, 단순한 즐거움, 쾌락만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쾌락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 전체를 숙고함으로써 현재의 삶과 바람직한 삶을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인지적으로(cognitively) 평가한다(Veenhoven, 2010). 이런 맥락에서 행복은 개인의 깊고 견고한 정서적 상태,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쾌락과는 달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그리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¹²⁾ 이렇게 볼 때, 대체로 행복은 즐거운 감정이나

11) 실제로도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의 감정의 질을 측정하는 쾌락주의적인 질문에 대해서와 행복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였다(Kahaneman & Deaton, 2010)

정서를 포함하지만, 또한 행복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reflection), 인지적 판단(cognitive judgement)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행복은 “쾌락을 포함하지만, 또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leasure)”(Hirata, 2009: 168)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행복학자들은 전통경제학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나 후생주의(welfarism)와는 다른 철학적 가정과 전통에서 출발하여 이들과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원래 효용(utility)만을 중시하는 전통경제학자들은 애초에 Bentham이 제안했던 효용개념에서 기수적(cardinal) 효용 개념을 배격하고 서수적(ordinal) 효용 개념만을 택하였고, 나아가 오로지 관찰가능한 개인들에 의한 선택, 즉 현시된 선호(revealed preference)만을 인정하는 소위 객관주의자(objectivist)의 입장을 취하였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subject) 개인의 경험들, 서베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경제학자들의 이론의 배경에는 개인들이 그들 각자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합리적(rational) 인간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적 합리성 논리에 따르면, 개인들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데 합리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는 이미 행복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활발한 행동경제학자들(behavioral economist)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는 곧 뒤이어 후회를 하곤 한다. 다시 말해, 전통경제학자들의 가정과 같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¹³⁾ 더 나아가, 인간은 스스로의 행복을 가늠하고, 혹은 판단하는 것과 실제 선택사이에 “체계적으로 다른 선호(systematically different ordering)”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Tversky & Griffin, 1991; Loewenstein & Ubel, 2008).

행복연구자들은 실증주의 경제학의 합리적(rational) 인간의 가정에 회의를 가지고, 현실에서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면에서 행동경제학자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Lane(2000)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는지, 혹은 어떻게 그러한 행복을 달성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주장하고, Frank(2012)는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 사이에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 결국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는 분명 전통적인 공리주의에 기반한 연구들과는 다른 배경을 지니고, 또한 결론도 다른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2) 이러한 의미에서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the overall enjoyment of one's life as a whole)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Veenhoven, 2010: 609).

13) “선호의 충족(satisfaction of preference)이란 것은 만족의 느낌(feeling of satisfaction)과는 다른 것”이며, “선호의 충족과 개인의 만족사이에는 기껏해야 ‘우연적 연관(contingent connection)’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Houseman, 2006: 122).

셋째, 행복이론도 결국은 모든 것을 효용정보로 환원시키는 후생주의(welfarism)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실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행복지수와 같은 단일한 수치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행복학자들이 행복을 경제성장이나, 빈곤,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공정책들을 대체하는 오로지 유일한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연구는 이들 여러 가치들을 대체(supplement)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완(complement)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연구는 궁극적인 가치의 유일한 척도로서 효용을 주장하고, 또 정책의 유일한 목표임을 주장하여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하는 공리주의, 또는 후생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IV. 글로벌 개발(development)과 행복이론

1. 성장중심 개발의 위기와 인간중심 개발로의 전환

사실, 선진국과 개발국을 나누는 구분 자체가 선진국은 개발의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개발국은 선진국을 닮아 따라잡기(catch-up)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Hirata, 2009).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의 지표로는 오랫동안 국민소득, GDP(gross domestic product), 혹은 1인당 GDP, GDP 성장률과 같은 것만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 범위를 넓힌다고 해봐야 개발은 국민총생산, 산업화, 수출 성장, 자본 유입의 확대와 같이 주로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제적인 지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중심, 성장중심의 의미로서의 개발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대부분의 글로벌 개발 원조(aid)를 지원받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발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프리카의 1980년대와 90년대의 경제성장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보다 낮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원조에 의존해 있어서 GDP의 30% 이상이 원조인 경우도 흔하며, 국가 예산의 75%가 원조국가에서 오는 경우도 흔하다(Kremer, van Lieshout, Went, 2009). 나아가, UN의 1960년대의 소위 개발 10년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더 높아질수록 빈곤이 줄어들거나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Jolly, 2004).

한편, 이와 다른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앞서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비롯해 다양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느끼는 인간의 전반적인 복리, 삶의 질, 삶의 만족, 행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일지라도,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 경제성장, 물질적 측면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있어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행복에 관한 급격한 관심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개발을 주로 소득, 또는 경제성장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며, 이를 증진시키는 데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보인다. 현대적 의미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조달러가 넘는 돈과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발국들은 제대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오히려 삶의 수준이 하락했다. 더불어 선진국들에서도 삶의 질이나 인간복리가 증진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어, 전반적으로 후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성장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발의 지표로서의 경제성장, GDP에 대해서는 Kuznets에 의해 창시되었던 1934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작 Kuznets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반적인 인간의 복리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쓰이게 되었으나, Kennedy(1968) 상원의원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측정한다.”고 평가한 것처럼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최근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후원한 경제성과와 사회 진보의 측정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의 보고서에 따르면, GDP 자료로 집계된 정보와 일반 사람들의 전반적인 복리 사이에는 점점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Stiglitz et al., 2011).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의 양적증가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들의 증가나 성장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라는 인식 또한 함께 늘었다. 기존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개발의 목표로 선호하였던 경제성장, GDP 성장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높이는 단기적인 것 등을 개발의 목표로 하던 것에서, 본래 개발의 목적이었던 인간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나, 복리를 개선하는 비전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 특히, 개발의 진정한 목표가 증가된 생산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질적인 인간성의 풍요(human enrichment: Goulet, 1997)”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개발을 정의한다면 인간의 복리, 삶의 수준과 기회에 있어서의 개선(improvement)을 일컫는 것이라 하겠다.¹⁴⁾

앞서 살펴 본 톨즈와 센 모두 공리주의 철학과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경제와 인간의 관계, 경제와 윤리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역전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발의 목적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개발

14) 본래 개발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Myrdal(1968)에 의하면 개발은 한 나라의 변환(transition) 또는 현대화(modernization) 전체를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개발은 사회 경제적인 현대화 과정과 거의 동일시 되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화뿐만 아니라 상품화, 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Cooper & Packard 1997). 이런 의미에서 개발은 경제성장외에도, 인적자원개발, 인권과 참여,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고원, 2010). 롤즈는 비록 국제개발의 의무로 확장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공리주의에서처럼 효용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기본재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사회를 모색하였고, 셴의 경우는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발, 역량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발의 비전을 제공하였다.

특히 UN이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사람들의 선택을 확장시키는 과정(process of enlarging people's choice)이라 정의(UN인간개발보고서, 1996: 49; 2009: 17)하고 있는 데에서 보듯이, 셴은 종전에 막연하게 규정해온 전반적인 인간의 복리 개념을 역량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국제개발 협력의 분야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셴이 롤즈의 의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셴의 이론의 경우에도 그 자체의 규범적이고 의무론적인 특성에서 수반되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추구하는 개발이 과연 그 사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람직한 개발(good development)라고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에서는 셴의 이론이 현재 이론적 기초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행복이론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에 있어 이들의 차이점과 실용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글로벌 개발에 있어서 행복이론의 역할과 정책적 함의

개발의 중심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인간이란 면에서 보면, 행복이론도 앞의 이론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글로벌 개발 이론으로서 셴의 역량이론과 비교해 보면, 행복이론과 역량이론 공히 본질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인간의 복리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복리를 추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물질적 수단인 소득과 같은 수단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인간의 복리를 인간 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¹⁵⁾ 나아가, 두 이론 모두 개인 자신의 복리에 대한 평가에 적어도 일부분은 의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두 이론 모두 전적으로 이들 개인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외부에서 부여되는 판단을 더 중

15) 역량이론과 행복이론의 공통점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행복접근이 보다 주관적으로 측정하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인간의 복리와 발전(development)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율적(autonomous) 측면에 기여하는 근본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두 접근 모두 인간의 복리를 이루는 수단과 실제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 역량접근의 경우에는 역량과 기능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행복접근의 경우에는 내적(intrinsic) 동기와 외적(extrinsic) 동기 사이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접근 모두 복지정책(welfare policy)이 실제로 인간의 복리(well-being)를 어떻게 촉진시키는지를, 이론적인 가능성과는 별개로 실현가능한 것들을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Bruni, et. al., 2009).

시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¹⁶⁾(Sugden, 2009).

두 이론이 공유하는 이러한 특성은 글로벌 개발정책의 수립과 실행 등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데, 셴이 지적했듯이, 시장의 기능에 비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다른 정치, 사회적 제도의 역할을 제고하는 광범위한 다차원 접근(many-sided approach: Sen, 1999: 126)의 정당성과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두 이론 모두 시장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인간중심주의 개발이론으로서, 또한 시장에 개입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행복이론은 셴의 인간중심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니는 다른 차원에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셴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규범적인(normative) 논의들이며, 윤리이론의 구분으로 보면 주로 의무론(deontology)에 근거한 논의인데 비해, 행복이론은 목적론(teleology)과 관련되어 있어서 구별되며, 그 기여하는 점 또한 차별된다고 하겠다. 윤리적 의미로서의 개발은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권리를 정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이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련된 사회의 내부에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권리의 존재 이유도 결국은 좋은 삶을 위한 것”(Seel, 1999; Hirata, 2009: 164에서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때로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 측면에서 개선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Singer(1995)에 따르면, 전통적 방식으로 살아오던 호주 원주민들이 현대문명의 삶을 살게 되어 그전의 기술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자, 삶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 물론 그들에게 현대적 삶을 강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바람직한 개발의 옳음의 측면, 규범적이고 의무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옳음, 목적론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런 맥락에서 행복론은 목적론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이론으로서 글로벌 개발의 다른 축으로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셴의 이론이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개발이 과연 그 사회의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추구해야 정말 바람직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행복이론은 셴의 역량이론이 채우지 못하는 가치의 영역, 옳음의 영역을 다루는 목적론적 이론으로서 역량이론과 다른 차원의 바람직한 개발을 정립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이 느끼는 복리의 실제 결과를 나타내는 행복은 국제 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근거로서 현실에서 유용하다. 역량접근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객관성을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공적이성과 비교하면, 행복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정신적 상태에

16) 그러나 두 이론이 이렇게 외부의 판단을 중시하는 근거는 상이한데, 역량이론의 경우는 공적이성(public reasoning), 행복이론의 경우는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다 (Sugden, 2009).

의존하여 왜곡(bias)이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들이 이에 익숙해지는 적응(adaptation)이 나타날 수 있다.¹⁷⁾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민감한 특성은 센도 인정하듯이,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람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 장점이기도 하다. 즉, 국제개발에 있어서 그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의무를 넘어서서, 정작 그 사회의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있고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센의 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센의 이론이 국제개발에 있어 사람들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함을 초점으로 하여 평가의 정보적 근거를 확장시켰다는 것은 크나큰 의의가 있지만, 센의 이론에서 핵심인 역량에 대한 정보의 요구수준이 너무 높아서 얼마나 유용한지, 또 얼마나 조작적(operational)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데, 이러한 한계를 행복이론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복의 이론은 센의 이론에 따른 여러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도 그 사회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여 가치 있는 기능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을 보여주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발정책을 통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사회, 문화, 지역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녀, 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행복을 좋은 삶의 징후, 혹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다른 가치들을 포괄하는 (inclusive)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행복과 다양한 다른 가치들과의 더욱 많은 선택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적 함의의 관점에서 보면 센의 처방도 결국은 롤즈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민주주의 정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이론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개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보면 너무 단순한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이디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는데(Rodik, 2008),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정부의 존재가 필요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더 나아가, 초스도프스키 같은 이들은 소말리아의 기근의 원인은 민주정부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은행과 IMF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Chossudovsky, 2003). 물론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도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에 대해 그 사회제도에서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느끼는 결과로서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7) 예를 들어, 센은 불평하는 부자(grumbling rich man)와 만족한 농부(contented peasant)의 예에서 부자가 농부보다 불행하게 느끼지만 생활수준이 높다고 한다(Sen, 1983). 더 나아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왜곡, 적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의 경우가 있지만, 요즘 같은 정보화·글로벌 시대에 집단적 차원의 왜곡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종합하면, 행복접근은 현실의 정책에 유용하게 적용 가능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어, 글로벌 개발의 목표와 그 지형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겠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개발은 사회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고, 역량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 등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옳은(right)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good) 삶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바람직한 개발(good developme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Hirata, 2009). 이런 면에서 볼 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규범적이고 의무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몰즈나 센의 이론만 가지고는 진정으로 바람직한 개발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행복이론은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목적론적인 접근으로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또한 의무론적인 역량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행복은 다른 목표들을 포괄하는 목표로서 역할을 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가치평가의 유일한 척도로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¹⁸⁾

최근에는 역량이론에 기반한 UN의 인간개발지수(HDI)와 주관적 만족으로서의 행복을 비교하고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상당부분 공유하는 부분도 많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하겠다.¹⁹⁾ 예를 들어, 기존의 역량관점에서 강조되어 온 교육과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Helliwell, et. al., 2012; Schimmel, 2009).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도 아주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행복이론의 입장에서는 성장제일주의자들이 믿어 오고 설파해 온 것처럼 경제성장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가난을 해결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개발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행복이란 주제의 복잡성과 각 국가와 사회, 상황(context)에 따른 다양성이 현실이라는

18) 센은 그의 역량이론과 관련해서 공적이성의 객관성을 공공토론과 논쟁, 가치평가의 과정에서의 공공의 참여를 통해 담보하고자 하는데(Sen, 2009), 행복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의 효용과 마찬가지로 유일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민주적 과정을 저해하리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복이 유일한 목표(sole objective)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면 행복이론은 센이 주장하는 역량이론과 상충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센이 행복접근에 대해 경계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센이 반대해 온 것은 효용과 공리(utility)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후생주의이지, 행복학자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센의 역량 개념은 실용적이고 전략적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옳은 역량의 특정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며, 인간중심 개발은 본래 UN의 인간개발지수(HDI)나 Nussbaum(2001: 78)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행복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그 다지 무리는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오랫동안 개발정책의 목표로서의 행복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센은 최근의 저작에서는 그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역량의 일종으로서 행복(happiness)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그가 우려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의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Sen, 2009: 276).

19) Schimmel(2009)은 UN의 HDI의 구성요소들인 소득과 교육이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들이 인식하는 것과 UN개발계획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UN World Happiness Report (Helliwell et al., 2013)는 UN의 HD의 목표가 행복의 주요 설명변인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것을 고려해 볼 때, 때로는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상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행복연구는 개발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고 할 수 있으며(Graham, 2005),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의 후속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이 빈곤을 포함하여 다른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같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행복이 지니는 본질적인 다양성과 복잡성은 정책의 선택에 있어 유연성(flexibility)을 주고, 또한 각 사회에 따라 다양한 대안들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맞춤형(customized) 목표와 전략을 제공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Kroll, 2013).

V. 결 론

행복을 국제개발의 목표로서 고려한다는 것이 행복이 좋은 삶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유일한 목표로서 가지는 위험성을 우려하여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행복이 그 자체로 좋은 삶, 또는 바람직한 개발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행복을 다른 가치들을 포함하여 좋은 삶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목표로서 이해하고 현실적인 개발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개발은 인류의 가장 광범위한 과제로, 바람직한 개발(good development)은 사회적 변화에 있어 옫음과 함께 좋음을 동시에 추구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이자, 또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개발 협력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고 행복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존의 개발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개발은 GDP, 경제성장에 머무는 개발 개념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국제개발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UN인간개발지표와도 차별성을 가지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더욱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행복론은 경제성장과 같은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하여 이를 다른 모든 사회에 강요하는데 익숙하고, 위기에 봉착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만병통치약(one-size-fits-all)과 같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진보를 믿고 그 중심에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인간'을 세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행복이론은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와 방향, 그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 원. (2010). 대안적 발전론에서 '인간중심'담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센과 롤스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1. 225-254.
- 손철성 (2010)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롤즈와 싱어의 견해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15. 135-162.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이상호 (2001). 센의 능력과 사회정의-롤즈의 정의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17. 283-316
- Beitz, C. R. (1979).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itz, C. R. (2000). Rawls's Law of Peoples. *Ethics*. 110-4. 669-696.
- Bruni, L., Comim, F., & Pugno, M. (Eds.). (2009). *Capabilities and happ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Chossudovsky, M. (2003).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and the new world order* (Vol. 2). Quebec: Global Research.
- Clark, D. A. (2002). Development ethics: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9-11. 830-848.
- Cooper, F., & Packard, R. M. (Eds.). (1997).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sciences: Essays on the history and politics of knowledge*. Univ of California Press.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 Escobar, A. (2011).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New in Pap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ank, R. H. (2012). *The Darwin economy: liberty, competition, and the common go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ulet, D. (1997). *Development ethics: a new discip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14. 1160-1171.
- Graham, C. (2009). *Happiness around the world: The paradox of happy peasants and miserable millionaires*. Oxford University Press.
- Hausman, D. & McPherson, M. (2006). *Economic analysis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bron, D. M. (2008). *The pursuit of unhappiness: The elusive psychology of well-being*. OUP Oxford.
- Headey, B., & Wearing, A. (1992). *Understanding happiness: A theory of subjective well-being*. Melbourne. Australia: Longman Cheshire Pty Limited.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2). World happiness report.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3). World happiness report.
- Helliwell, J. &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435-1446.
- Hirata, J. (2009). The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Capability and the Happiness Perspective. in Bruni, L., Comim, F., & Pugno, M. (Eds.). (2009). *Capabilities and happ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Hirata, J. (2011). *Happiness, ethics and economics* (Vol. 142).
- Hirsch, F. 1976. *Social Limits to Growth*.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 Jolly, R. (2004). Global development goals: the United Nations experienc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5-1. 69-95.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 Kennedy, R. F. (1968). Speech at University of Kansas.
- Kremer, M., van Lieshout, P., & Went, R. (2009). *Doing Good or Doing Better. Development Policies in a Globalizing World*.
- Kroll, C. (2013). Global Development and Happiness: How can Data on Subjective Wellbeing Inform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 Lane, R. E.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Yale University Press.
- Landes, D. S. (1999).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hy some are so rich and some so poor*. WW Norton & Company.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The Penguin Press.
- Loewenstein, G. & Ubel, P. A. (2008). Hedonic adaptation and the role of decision and experience utility in public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8. 1795-1810.
- Nussbaum, M. C. (2001).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C. (2008). Who is the happy warrior? Philosophy poses questions to psychology.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7(S2). S81-S113.
- Ono, H., & Lee, K. S. (2010, January). The social-institutional bases of 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 *annual meeting of the Japan Economic Association, Chiba, Japan*.
- Pogge, T. (2001). Priorities of global justice. *Metaphilosophy*. 32(1-2). 6-24.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 Rawls, J. (1999). *The law of peoples: with,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Harvard University Press.
- Rodrik, D. (2008).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immel, J. (2009). Development as happines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appiness and UNDP's analysis of poverty, weal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93-111 .
- Seel, M. (1999). *Versuch über die Form des Glücks: Studien zur Ethik*.
- Sen, A. (1983). Poor, relatively speaking. *Oxford economic papers*. 35(2). 153-169.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Alfred A.
- Sen, A. (2000). Consequential evaluation and practical reason. *The Journal of Philosophy*. 97-9. 477-502.
- Sen, A. (2009) *The idea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piro, I. (2012). *The moral foundations of politics*. Yale University Press.
- Singer, P. (1995). *How are We to Live?: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Prometheus Books.
- Stevenson, B., & Wolfers, J.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No. w142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tiglitz, J., Sen, A., & Fitoussi, J. P. (2011).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2009. (<http://www.stiglitz-sen-fitoussi.fr/en/index.htm>)
- Streeten, P. (1981). First things first: meeting basic human need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ublications*.
- Sugden, R. (2005, June). Capability, happiness and opportunity. In Capabilities and Happiness in Bruni, L., Comim, F., & Pugno, M. (Eds.). (2009). *Capabilities and happ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Thin, Neil (2012). *Social happiness*. Policy Press. Kindle Edition.
- Tversky, A., & Griffin, D. (1991). 12 Endowment and Contrast in Judgments of Well-Being. *Strategy and choice*. 297.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Overcoming Barriers: Human Mobility and Development*. 200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Veenhoven, R.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1-39.
- Veenhoven, R.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605-629.
- Woo, C. B. (2013). Investigating Contextual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Seoul Residents.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8-2. 49-79.

Explor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Global Development: Theoretical Found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Happiness Approach in the Context of Global Development

Woo, Chang Bi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appiness approach as an alternative path to global developmen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happiness approach in the context of global development are analyz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theoretical approaches to global development, including those of Rawls and Sen.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appiness approach are also discussed. While the approaches of Rawls and Sen can be said to belong to the deontological dimension of ethics, the happiness approach qualifies as a teleological theory of ethics, referring to the good life. As good development requires the ethical qualities of both the ‘right’ and the ‘good’, (i.e., deontological and teleological contents), the acceptance of the newly emerging happiness approach in global development debates might contribute to achieving ‘better’ development in the sense that the teleological aspects of the happiness approach may comple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an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the good life.

[Key Words: Global development, Happiness, Capabilities, Sen]